

# 시민 10명 중 6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방향성 공감”

지역균형발전·대학서열완화 기대 정책 우선 과제로 지속가능성 꼽아 집중 투자분야에 ‘지방대학 경쟁력’

시민 10명 중 6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 정책의 핵심 취지인 지역균형발전과 대학 서열완화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 구조가 대학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교육의봄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김상우 국립경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실시한 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2.9%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58.6%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을 위한 지역 거점국립대학 전현직 총장·교육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로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32.9%, ‘공감한다’가 25.7%로 나타났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6%였다. 이번 조사는 교육자, 학부모, 전문직 종사자, 학생 등 총 76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

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내세운 핵심 취지인 지역균형발전과 대학 서열 완화에 대해, 시민들도 일정 수준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기대효과를 묻는 문항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3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인재의 수도권 대학 졸업 완화(29.0%) ▲대학 서열 완화(21.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다수는 해당 정책을 단순한 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연계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86.9%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영향 있다’는 응답이 67.2%에 달했다. 인구와 산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과 경쟁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다.

정책 성공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유관 국가정책 병행 추진(11.1%) ▲대학 특성화 및 지역산업 연계 강화(1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일회성 재정 지원에 그칠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할 분야로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가 36.2%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인재양성 역량 강화’는 28.6%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17.2%)와 연구 역량 강화(15.4%)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안상진 교육의봄 연구사업팀장은 “응답자들은 정부 재정이 수도권 등 특정 대학에 집중돼 온 기준 흐름을 넘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아울러 대학 경쟁력을 입시 성적이 아닌 인재를 얼마나 잘 양성하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입결 중심의 대학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과 인재 양성에 대한 재정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hji@metroseoul.co.kr

## 58년만에 트램 부활… 내달 위례선 시운전

서울시 교통통제 등 개통준비 만전 5월까지 총 10편성 순차도입 예정

58년 만에 서울 도심에 트램(노면전차)이 다시 들어선다.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 차량기지와 궤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2월부터 시운전에 착수한다.

트램은 도로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운행하며, 도로에서 직접 승하차할 수 있는 등 접근성이 뛰어나다.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 초도편성 차량을 27일 새벽, 차량기지로 반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1월 초도편성 반입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10편성(초도 1편성 포함)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2월부터는 실제 운행 노선에서 위례



위례선(트램) 차량 모습. /서울시

선 개통을 위한 최종 검증에 나선다. 우선 8월까지 본선 시운전을 통해 ▲주행 안전성 ▲지상설비 연계동작 등 차량에 대한 16개 항목을 종합 검증한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오송 시험선에서 5000km 이상 예비주행 시험을 마쳐 1차 검증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12월까지 철도종

합시험운행을 통해 시설물과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연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개통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트램의 특성을 고려, 시민 안전 확보하기 위해 위례선 전 구간에 설치된 13개 교차로와 35개 횡단보도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별도 상황반을 운영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시운전 차량에는 보험을 가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도 대비한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시운전은 위례선 트램차량과 시설물, 시스템 간 안전성과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핵심 단계”라며 “철저한 시험과 검증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레전드50+ 2.0’, 중기부 성과평가 최고등급

도내 바이오헬스산업 성장 기반 강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추진한 ‘경기도 첨단바이오헬스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레전드50+ 2.0’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지역특화 프로젝트 2.0 성과 평가에서 전국 16개 참여 지역 가운데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레전드50+ 2.0’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도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

기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경과원은 산학연 협력기관과 전문 지원기관을 연계해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총 47건, 약 32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기술 고도화, 사업 확장, 연구인력 채용,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 기업 성장 전반을 지원했다.

1차년도 지원 성과로 참여기업의 매출액은 370억 원 증가, 수출액은 980만 달러 확대, 신규 고용은 60명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과원은 참여기업의 매출 성장,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 핵심 지표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관리하고, 2차년도 사업에서는 글로벌 진출과 기술 사업화 연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레전드50+ 2.0 사업은 기술개발, 사업화, 수출, 디지털 전환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기업 성장 지원 모델”이라며 “1차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지원을 고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바이오헬스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美민주 “트럼프, 경합주서 혼란 조장해 ‘중간 선거 관리권’ 장악 시도”

▲ 359명 탄 필리핀 여객선 침몰…15명 사망·28명 실종

/사진 뉴시스

▲ “軍서열2위 장유샤 실각…전례없는 시진핑 권력 집중”

▲ ICE, 미네소타서 또 총격…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

▲ 日당국, 암호화폐 ETF 2028년 허용… 금융상품 인정

▲ “이란, 각종 무기로 시위 무자비 진압”… 인터넷 복구로 추가 증언

### 오늘의 날씨

해뜰 / 07:40 | 해짐 / 17:50

1월 27일(火)

음력 : 12월 9일

수도권 날씨

-7 ~ -2 ℃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메트로 한줄뉴스